

4.21  
김민준

# 전여대회(전교여학생대표자회의)에 들어가며.....

## @ 전여대회란 무엇인가

전교 여학생 대표자 회의를 말한다.

이제까지 중앙 운영위가 경대 여학생회의 실질적 대의 기구로서 총여사업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단위였다. 그러나 중앙운영위만으로 편차가 심한 단대 과 여학우들의 상황과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고 실지로 기층 여학의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기층 까지의 지도와 사업 공유가 미비했다. 총여학생회가 여성문제를 칠천의 힘에 근거하여 풀어나가며 여학의 실질적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려면 칠천여학우 한사람 한사람의 이해와 요구를 달아 낼 수 있도록 과의 주체를 만들어내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한다. 그럴때 총여는 여학우 대표자들에게 근거한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여학우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모아내고 이를 기반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여대회는 원칙적으로 총여학생회의 사업의 방향성을 잡아내고 결의를 보는 자리라고 하겠다. 아직까지 여학생회의 수준의 차이가 현저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실정에 맞는 여학생운동을 풀어낼 수 있는 중심간부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전여대회가 실제 여학의 중심사업으로 자리잡는 것이다.

여성은 태어날때부터 여성이라는 이름만으로 차별과 억압 굴종착취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기층 자주여성으로 살아가고자 이땅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분산된 의견들을 하나로 결집하고 칠천이 함께 실천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여성이므로 더 위대해 보일 수 있는 우리 여성이 되자.

## @ 전여대회의 목표와 의의

총노선과 일년의 사업을 기층과 함께 공유하고 이후의 전망을 수립하며 여학생회의 체계를 통한 사업의 시작인을 각각하고 체계강화를 위해 여학생대표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기층여학우들과의 접촉을 통한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이것을 토대로 여학생회 사업의 핵심 사안을 내올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한 과와 단대의 지도구심으로 실질적 여학우 대표기구로 총여학생회가 올바르게 자리매김 한다.

95년 전여대회의 의의를 살펴보면,

모든부분에서 변화의 시작시기라고 할 수 있는 95년을 맞아 경대여학운을 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살펴보자.

해마다 외쳐왔던 여학운자긍심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몸 대주는 간부로서 전락해가고 있고 과나 단대의 여학생회또한 체계만 있는 사람이 없는 앙상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 이에 다시한번 여학생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경대여학운을 방향성을 칠천과 함께 잡아내는 것이 올해 가장 중심적인 기조로 자리잡고 있다.

첫째 칠천 여학우를 하나로 묶어 새우는 장이 될 것이다.

사업을 푸는 방식적 면에 있어서 조금은 수준이 낮아 영성한 모습으로 보여질 지라도 칠천이 합의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학생회의 모습이다. 성과로 담을 것이다. 그리하기엔, 전여대회를 통해 칠천이 합의하는 칠천의 여학생회일년을 내올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여학생회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내어 온다.

몇몇 간부들의 머리속에서 고민되어지는 검증받지 못한 사업이나 여학운의 방향이 아니라 기층간부들의 학우들속에서의 고민속에서 살아있는 여학생회 사업을 내온다.

셋째 여학간부의 책임성을 높여내고 사업의 주인으로 자리잡는다.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도 있을 것이지만 현 경대여학간부중에 어느 누구한사람 자기자리를 명쾌

히 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은 없다. 또한 자기단위의 고민에만 몰혀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단위 이기주의를 들어내는 간부가 많다. 전여대회를 통해 전 경대 차원의 여학생운동을 고민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째) 한총련 출범식 특히나 전여대협 출범식을 힘차게 결의하는 장이다.

뜬소문처럼 이야기되고 있고 어느단위하나 출범식에 대해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 누구나 주객관적 정세에 의해 힘차게 준비해야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자신감의 부족으로 누구하나 자신있게 제기하고 준비해 들어가는 사람은 드물다 하겠다.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경대여학운을 올바르게 진행할 마음으로 출범식에 대한 올바른 논의와 결의를 내오는 장이 되어야 겠다.

출범식은 몇몇 중심간부들이 준비하고 학우들을 초대하는 이벤트식 사업이 아니라 우리운동의 혁신과 발전을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장이다. 이에 우리는 기층 여학우속에서 부터 준비하는 결의하는 출범식을 만들어내고 우리학교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소극적 참가형식의 출범식, 말로만의 나의 조직이 아니라 경대 여학이 주도적으로 준비해들어가는 한총련 전여대협이 되도록 한다.

#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왜! 왜! 전여대회를 이 날 개최하는가?

다시 한번 '3.8 세계 여성의 날'을 되짚어 봅시다.

그리고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의 정대여학생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단결하여 일어섭시다.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학생회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열악했던 1857년에 일어났던 여성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날 전여대회를 개최하여 정대 여학생회의 역량을 하나된 힘으로 모읍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 1. 3.8 세계 여성의 날의 유래

1857년 3월 8일 뉴욕의 섬유업계 여직공들이 하루 12시간의 중노동과 저임금에 항의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으나, 무참히 경찰에 의해 탄압당하였고 1860년 3월에는 여성들이 자신들만의 노조를 결성하여 요구가 관철되도록 추구하고 있었으며,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피켓을 들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식임금, 작업시간, 작업량 및 위험한 작업설비 등 가혹한 노동조건에 반대했고 어린이들리에 대한 착취를 중단할 것과 인간답게 산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리하여 전 여성의류산업, 남성의류산업부분으로 확대되고 끝내 전 의류 노동자들의 단결로 이어지면서 의류 노동자연합을 탄생시켰다.

1910년 2차 노동여성 국제회의에서는 미국 섬유노동운동의 도화선이 된 3.8 시위를 매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후 매년 3월 8일이 되면 세계 각국의 수천만명이 노동여성투쟁의 날로 기념해 왔다.

이날은 사회의 어노분야에서나 소외되어 왔고 지배자들이 갖은 권위의식에 짓눌려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눈뜨지 못했던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단결투쟁으로 얻어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 2. 우리나라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진행과정

1911년 최초의 '세계 여성의 날'이 시작된 이래로 세계 각국에서 기념대회를 열었는데 북한에서도 1910년 이래 여맹을 비롯한 전 여성들이 함께 모여 3월 8일을 '국제 부녀절'로 기념하여 그 기념대회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 기념대회를 가졌으며 기층 민주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강연을 열기도 했다. 이후 세계 여성의 날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맥이 끊겼다가 다시 부활된 것은 1985년 여성단체에 위해서이다.

1985년 제 1회로 '민중, 민주, 민중이 함께하는 여성운동'을 선언하여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남녀 평등의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여성들이 정치 의식 고양과 전체 여성의 힘을 결집할 것을 주장하게 된다. 반민중적 반민중적 정책을 노골화하는 미국과 노태우 일당에 맞서 각 계급 계층별 여성은 자주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대응해 왔다.

1986년 제 2회에서는 '민주화와 여성의 생존권'이라는 주제로 20여 여성단체들이 기층 여성의 생존권 투쟁을 지원하고 KBS시청로 폐지운동을 벌여 나감으로서 가정주부들의 대거참여가 이루어졌다. 1986년에는 이전의 개개 사건에 대한 여성단체간의 연대강화, 어용단체나 개량적 여성단체와 구별되는 여성 단체연합의 통일된 행동, 기층 여성문제와 사회문제에의 적극참여 등은 기존의 여성해방운동의 한계를 한단계 극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7년 제 3회에는 '민중현실과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로 행해졌다. 86년 아시아 올림픽과 남북 분단, 반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입개방압력, 군부독재의 내각책임제를 중심으로한 장기적 운동 등과의 국내외적 현실에 대응하는 여성운동의 과제를 대중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선전

활동의 모색, 여성운동의 방향정립, 통일적 입장하의 연대활동의 모색, 민족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여성운동의 역할 등의 모색과 더불어 생존권 확보와 남녀평등권 쟁취라고 설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갔다.

1988년 제 4회 대회는 '여성이어! 민족 자주화의 대열로'라는 기치하에 또다시 자행되고 있는 미제국주의의 경제, 군사침략에 따른 민중의 생존권 문제와 여성의 성적 폭행, 성 상품화, 에이즈의 문제를 88년도의 여성운동의 문제로 설정하였다.

1989년 이후 지금까지의 3.8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성운동의 과제를 밝히고 연대 활동을 다지는 날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 3. '3.8 세계 여성의 날'의 현재적 의미

1908년 3월 8일 거세게 일어났던 여성노동자들의 요구가 8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우리 여성들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2년째를 맞아 지난 2년동안의 김영삼정권의 국정운영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UR협상에 대한 사대예속적인 대응, 상무대비리, 이회창총리사건, 지존파사건, 성수대교 붕괴, 세금비리등 많은 실정과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은 한계에 다다라 허구적인 세계화 논리속에 혼란의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2월 17일에 통과된 성폭력 특별법을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로 남아있으며 친고죄 적용은 부분적으로만 폐쇄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모성보호를 위해 존재하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유급생리휴가를 정부는 무급제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노동자들의 모성을 아예 보호조차 하지 않겠다는 비인간적인 발상에 다름아니며, 일하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할 탁아소의 지원과 확충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제는 생화 가까이서 여성문제에 부딪치며 살아온 여성들의 소리가 그 해결의 실마리로 퍼져나올 때이다. 외세의 손끝에 짓눌려 왔고 모성보호라는 미명하에 일터에서도 소외되어 왔던 여성들의 절박한 소리가 하나된 힘으로 울려 나와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자치화의 시대를 맞아 나라 구석구석의 살림을 꾸리면서 주민의 이해와 정서를 피부로 느끼며 살아온 주부들의 구체적이고 알뜰한 생활모습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자자체 선거에 대한 박찬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와 민자당은 자자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식의 계속적인 여론 공세를 자자체 선거를 파행으로 몰고가려 하였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민자당의 음모를 분쇄하여 오는 6월 27일 자자체 선거에서 여성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여성의 단결된 힘으로 정부와 민자당을 강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민

# 제10대

## 자주 참여학생회 1년 사업계획서

지금까지 참여학생회가 터트리기식 사업을 많이 하면서 학우들의 적극적 참여유도가 되지 못했다. 또한 무엇인가 행사사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하는 듯한 강박관념이 강했다. 그러나 올해는 과감히 말한다. 이제 힘빼기식 사업도 터트리기식 사업도 버리고자 한다. 좀더 내실을 다지는 그러한 1년이 되도록 그리고 좀더 간부를 고민하게 만드는 1년이 되도록 10대 참여학생회가 노력할것입니다.

### 3월 개강연사

3.1. 새학기생의 날 홍보

#### 전국여학생대표자회의

- 참여학생회를 7천 여학우의 대표조직으로 합의하는 장으로
- 여학간부들의 질적 도약을 담보하게 하는 장으로
- 여학운을 함께 고민하고 합의하는 장으로
- 1년의 사업을 학우들에게 검증받는 장으로

#### 여성문화제

- 지금까지 참여학생회가 새내기 위주의 사업만을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속에서 복한 7000여학우들의 문화요구를 풀어내는 자리로서

#### 대동학교

- 새내기의 한달간 대학생활을 총화하는 자리로서, 이후 대학생활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자리로서 놓인 새내기 조직사업이다.

4월 3월 행사를 통해 던져준 문제의식들과 요구, 지향들을 각 부서별

로 총화하는 자리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고민을 던져주는 부서

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부서 사업 진행시기

4.9.21  
4.19

**5월** **건전한 복원문과 영성 업의서기**

- 학우들과 함께 대학 주변문화, 광고들에 관한 토론회등을 단  
위에서 실시함으로써 학우들과 물갈이 투쟁의 의의를 합의하  
면서 1년을 함께 하는 달

**6월** **농활 준비기**

- 여학생회가 여성농민의 고민을 주도적으로 받아 안으면서  
여농반 야동반으로 세분화 전문화 준비를 해야한다.

**7월** **1학기 사업 평가 정리의 달**

**8월** **2학기 일꾼학교**

- 1학기 일꾼학교가 별도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과 한학기 사업  
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면서 여학간부들을 재정비하는 자리로  
서의 일꾼학교를 진행하려한다.

**9월** **2학기 개강연차**

**1학기 사업평가보고**

**단위별 사업준비**

- 지금까지는 취업이 여대생의 가장 큰 요구이며 지향으로 받  
아들여져 중앙단위나 하부단위나 아니면 취업정보센터에서도  
나름의 기준과 판단으로 세미나나 강연이나 기업설명회등을  
진행했었다. 하지만 사람마다의 요구들을 중앙단위에서 풀기  
에는 너무나 다양했다. 올해 만큼은 단위 여학우들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된 실질적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을 해야 할것  
이다.

**10월** **일꾼학교 3학기**

**11월**